

중앙일보 97 대교평 '교육개혁부문 3위'

교육여건, 교수·연구, 재정·경영, 평판도 성적 저조

지난 6월부터 중앙일보가 실시한 '97 대교육평가' 중 교육개혁도 부문에서 우리학교가 3위를 차지했다.

중앙일보 대교평가팀이 1백 81개 4년제 대학 중 졸업생이 없는 신설대나 체육대, 산업대를 제외하고 1백 11개 대학을 대상으로 총 5개 영역에 걸쳐 실시한 이번 평가 영역은 △교육여건 및 시설△교수, 연구 △재정, 경영 △대학평판도 및 종합평판도 △대학개혁도로 우리학교의 경우 대학개혁도 부문에서 연세대, KAIST에

이어 3위를 획득했다.

대학개혁도 평가의 기준이 된 사항은 학교정보화, 자원봉사, 대외개방도, 96학년도 대교육평가 점수 등인데 우리학교는 모든 영역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학교정보화의 경우 올해 신설한 도서관 PC열람실과 학교가 학생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ID카드가 좋은 성적을 얻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자원봉사 부문의 경우 사회봉사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과 자원봉

사자의 특별전형을 도입한 것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큰 작용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외개방도 면에서는 학점교류, 외국대학의 수를 가지고 매긴 평가에서 6위를 차지한데다 자매결연대학의 수가 가장 많아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학개혁도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여건 및 시설, 교수·연구, 재정·경영, 종합평판도 등의 영역에서는 20위권을 면치 못하는 결과를 보

였다. 이는 내실보다는 외적인 실적이 앞장서는 학교 운영실태를 보여주는 예로 이번 평가를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우리학교의 입장에서는 만족할만한 단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 평가는 종합평가를 비롯, 학과평가도 이루어졌는데 학과평과의 대상학과는 기계계열학과, 수학과, 국어국문학과, 산업디자인 계열학과, 신문방송학과로 총 5개 학과이다. <강남이 기자>

교육개혁도 종합순위			
순위	대학	순위	대학
1	연세대	5	포항공대
2	KAIST	7	아주대
3	경희대	8	동국대
4	이화여대	9	홍익대
5	포항공대	10	서강대

교수·연구 종합순위			
순위	대학	순위	대학
1	KAIST	8	부산대
2	서울대	9	서강대
3	포항공대	10	성균관대
4	연세대	11	아주대
5	한양대	12	전북대
6	경북대	13	충남대
7	고려대	14	경희대

스포츠마케팅으로
학교를 알린다

선수유치 위한 투자 및

일반학생 응원 필요

70~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부모님 세대들은 '경희대' 하면 '체대'를 먼저 떠올릴 만큼 체대의 위상은 상당했다.

체육대학의 경우 설립초기부터 국내 유일의 체육대학으로 설립되었고, 그동안 무수히 많은 국가대표선수와 지도자를 배출하여 한국체육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의 성적 및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타대학과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다.

실제로 얼마전 '97 전국체대 야구대회'에선 야구대 인하대에 역전패를 당했으나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럭비부의 9월 4일 삼삼경 7인제 럭비 선수권대회 우승 등 체육부는 그간의 시합마다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 왔다.

시설면에 있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160평 규모의 웨이트 트레이닝장 건축, 체육부 학생들의 기숙사인 국선관 기숙사 등으로 국내 어느대학 못지 않은 우수한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원비와 그간 거두어 온 성적만으로 체육부지원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우리학교는 체육부문에 있어 순수 아마추어리즘을 표방하고 있다. 때문에 우수선수유치를 위한 별도의 스카우트비용은 전무한 상태이다. 물론 지금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오기는 했지만 체육부가 오늘날의 성적을 거두는 데는 타대학의 최소한 세배 이상의 노력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주엽 정도의 선수가 한명만 있어도 우리학교 농구부의 우승은 마는 당상이다"라고 말하는 농구부 최부영 감독은 "시설 및 지원면에서는 크게 만족하고 있으나 '우수학생유치'가 어렵다"고 말한다.

우수학생을 끌어오기 위해 한명당 일억이상의 스카우트비를 제시하는 타대학의 상황과 달리 스카우트비가 부재한 우리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남독한 구제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한 우수학생유치는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스포츠마케팅이란 용어가 어색하지 않음만큼 오늘날에는 스포츠를 통한 광고효과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를 통한 학교홍보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해마다 열리는 연고전 등에 4~5만명의 관객이 동원되고, 장차 대학에 들어올 청소년들의 관심



▲우리학교체육부는 시설 및 성적면에서 결코 타대에 뒤지지 않으나 우수학생유치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위 사진은 일본의 아카기대학과의 연습경기모습

이미지광고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사례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학교 체육부 행정인원은 4명뿐이다. 이 인원으로 스포츠마케팅분야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스포츠를 통한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화된 조직구성이 시급하다.

또한 일반학생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매 결승경기의 경우엔 관람표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최소한 일주일 이전에 경기일정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요한 시합의 경우 전교생이 응원을 갈 수 있도록 학교를 하루 휴교하는 등 응원부문에 있어서도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학교의 기본적인 입장은 돈을 주고 선수를 사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다른 학교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졸업 후의 진로문제나 교원인용 및 유학기회보장 등 구체적인 제도 현실적인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용섭 기자>

체육부 대회실적

부서	대회실적
야구부	'97전국체대야구대회 준우승
축구부	'97전국체대선수권대회 준우승
농구부	'97 MBC에 전국대학농구 준우승
체조부	'97 제52회 전국종합체조선수권대회 단체종합우승
럭비부	제8회 대통령기 전국종합선수권대회 우승
핸드볼부	제52회 전국종합핸드볼선수권대회 준우승
하키부	제40회 전국종합하키선수권대회 우승
수구부	제2회 도로공사배 전국여자종합수구 선수권대회 우승
유도부	전국체대 유도시선수권대회 2·3위
배드민턴부	전국학교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여자단체우승, 남자단체 2위
체조부	제22회 KBS배 전국체조대회 단체전 1위
배구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금메달
복싱부	제8회 전국대학연맹회장배 복싱선수권대회 우승, 준우승
육상부	제26회 전국종합육상선수권대회 1·2·3·4위
태권도부	제6회 국방부장관기태권도대회 남자부 우승, 여자부 우승
볼링부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볼링대회 2위
골프부	일동라이프배 전국골프대회 2위

경희가족과 함께하는 가을콘서트

일시: 1997. 10. 16 오후 6시
장소: 서울캠퍼스 노천극장
참가연예인: 권인하, 변진섭
강산애, 장필순
리아 외

수원 '학생운동은 끝났는가' 공청회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2일 한총련 혁신과 앞으로의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했다. 학생회관 로비에서 진행된 이번 행



한·중·일 대학 공동 학술대회

우리학교·북경대·일본대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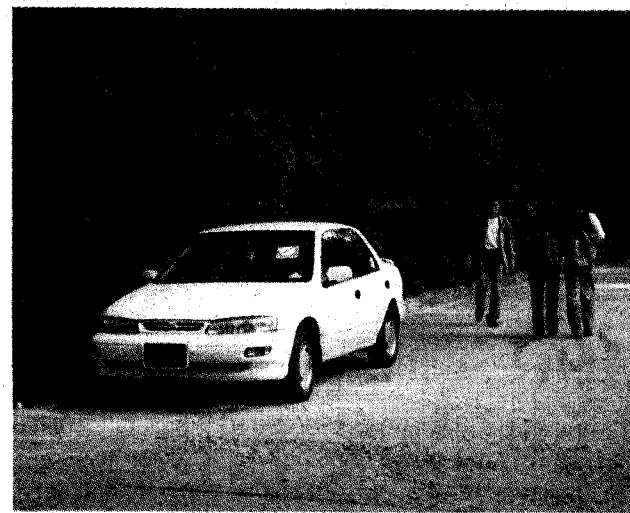
우리학교, 북경대, 일본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아태지역연구원(원장: 김달현 교수)이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오는 9일부터 양일간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3층 Peace Hall에서 개최된다.

'동북아 안보와 한·중·일 경제협력'에 관해 토론하게 될 이번 학술대회는 9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3개 분과로 나누어 주제 발표를 한 후 배경된 토론자들이 토론

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표창조>

분과	발표 주제	발표 제목
제1분과	가조요 요가와 교수(일본대)	Factor Accumulation and the Pattern of Trade in East and South-East Asia in the Post-War Period
	한중교수(북경대)	동북아시아의 다면적 안보구조에서의 한·중·일 관계
	한중교수(서울대)	중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과 동북아시아
	한중교수(경희대)	한·중·일 안보협력의 가능성과 그 과제와 전망
제2분과	한중교수(북경대)	중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
	한중교수(하와이대)	Recent Sino-Japan Relationship and its Influence upon Northeast Asian Security
	한중교수(경희대)	동북아안보와 한반도
	한중교수(서울대)	동북아안보협력: OSCE와 ARF 비교연구가 동북아시아에 주는 함의
제3분과	한중교수(북경대)	한·중·일 안보협력의 가능성과 그 과제와 전망
	한중교수(일본대)	이·인 안전보장조약과 중립관계
	한중교수(서울대)	Marketing System Development in East Asia
	한중교수(경희대)	남북한 관계와 동북아 안보

경희 Space



법대로 양심대로

서울캠퍼스 인권복지위원회는 2주 전부터 학내 주차단속을 위해 주차금지구역에 노란선을 그어 그 지역에 차를 주차할 경우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후 2주가량이 지난 지난주에도 단속지역에 차량이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으니 학교측의 홍보 부족도 문제이지만 차주의 법치안 양심이 측은하기만 하다.

지면안내

- 2 시론
정치교육특위 어떻게 되었나
- 3 학술
한국지역주의의 사회심리학적 분석
- 5 사회
서울시내 환경오염 연구조사
- 8 문화
캠퍼스 문화공간 점권
- 9 경희의 이름으로
신준식 동문(한익대 88년 졸)
- 12 생활문화
경희인의 상의식과 문화



경희 그 한주의 역사

1958. 10. 10 문리대가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된 날
1971. 10. 12 복지회관내 갤러리의 개관일. 사진은 갤러리에서 열린 디자인 전시회를 관람하는 학생들의 모습
1973. 10. 11 한국의 7대 불가사의라고 칭해지는 다이아몬드 정원의 새단장일.
1983. 10. 6 2학기 중간고사 시작! 이 해 뿐 아니라 대부분의 해가 이후에 중간고사를 시작했다.

교내단신

베네주엘라센트럴대학 합창단 공연 지난 5일 한국을 방문하여 순회공연을 갖고있는 베네주엘라센트럴대학 합창단이 오는 8일 오후 3시 수원캠퍼스 도서관 앞광장에서 공연을 한다. 베네주엘라 대사관에서 후원하는 이번행사에서는 DE CORAZON 등 14곡의 합창단 공연과 CIELITO LINDO 등 3곡의 아르모니아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졸준위, 어학연수 특강 서울캠퍼스 졸업준비위원회(졸준위)는 '성공적인 어학연수 어떻게 할 것인가?' 특강을 오는 8일 오후 6시 정경대 201호에서 실시한다.

자연과학부 전공실명회 자연과학부는 '제2차 전공 및 학부실명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자대 시청각실에서 개최한다.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자연과학부 6개 전공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98학년도 1학기 장학금 및 기숙사 신청서 접수도 실시한다.

체대대 1백22명 전국체전 출전 체육과학대학 학생 1백22명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제78회 전국체육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다.

출전하는 종목은 복싱, 배구를 비롯한 11개 종목이며 이번 대회는 경상남도 창원, 김해 일대에서 개최된다.

사회학과 특강 사회학과는 오는 8일 오전 9시 '북한 사회의 통치전략과 통일의 문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8일 문리대전 결승 문리과대학이 매년 개최하는 '문리대전' 결승전이 오는 8일 개최된다.

학과대학 예선을 거쳐 결승에 오른 팀들간 경기가 치러지는 이 행사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되며 이 날 치러지는 종목은 축구, 농구, 발아구, 족구이다.

사 고

도깨비 장터 이용안내

대학주보사에선 학우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벼룩시장인 '도깨비장터'를 마련했습니다.

다 배운 교재, 컴퓨터 등 사고싶은 것, 팔고싶은 것이 있으시면 학내 곳곳에 마련된 도깨비장터에 가져와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 월요일 대학주보 정보면에 그 내용을 실어 드립니다.

열린소리함 비치

학우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대학주보사에선 학내 대학주보 기판대에 '열린소리함'을 설치하였습니다. 학교생활 중에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대학주보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열린소리함에 투고하십시오. 언제나 학우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교시람

개혁을 위한 개혁인가

올해 초부터 우리학교는 새 총장 취임과 때를 같이 하여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학부제의 본격 도입 등 개혁으로의 움직임은 얼마전 한 일간지가 실시한 대교육평가 중 '교육개혁부문 3위'라는 평가를 안겨주기도 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얼마전 사법대를 해체하고 문리대로 통합시켰다는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교육부의 교원감축 결정에 따라 점차 약해지는 사법대의 현실과 그간 지속적으론 논의되어 온 미교과의 독립 문제와 결부된 이번 사안에 대해 '내년에 있을 교육부의 사법대 평가를 비롯, 그간 고전을 면치 못한 사법대의 사정을 생각해 볼 때 발전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학교측의 의견이다.

그러나 33년 전통의 단과대학 존재 문제가 달린 이번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학교측이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점들이 몇가지 있다. 먼저 사법대가 문리대로 통합되고 난 후 기존의 사법대로 복합하게 될 학생들의 경우 각 과당 정족인원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그동안 영어교육과 관련, 교육을 해 온 기존 영교과 교수들이 영어학부로 배치될 경우 교과과정과에 대한 개편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개혁, 모든 것이 급변하는 요즘에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누구든 한번쯤 도전해 볼만한 것이다. 그러나 그 개혁이 오로지 개혁을 위한 개혁이 되었을 때 이후 뒤따를 부작용으로 들게 되는 원망의 깊이는 개혁 당시 듣는 찬사에 비해 더 깊고 견장을 수 없기 마련이다. 이에 학교측은 이번 결정으로 빚어지게 될 현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강남이 기자>